

## 총회장 주준태 목사와의 대담



대담자: 황대우

주준태 목사는 삼천포교회를 9년간 목회하고 1990년부터는 현재까지 송도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63회 총회(2013년 9월 24일~27일) 63대 총회장(50번째 인물)으로 당선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부산노회장과 고신총회 세계선교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인터뷰는 11월 27일 진행되었고 고신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대담 형식으로 취재했다.

Q: 가족사항은 어떠신지요?

A: 저는 올해 65살이고 두 살 아래 집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는 둘이고, 그 중 75년생 큰 딸 혜랑이는 6년 전에 암으로 투병하다가 천당 갔는데, 영문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고신대에서 초빙교수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77년생 둘째 딸은 서울대에서 서양화 전공으로 석사까지 했고, 사위는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부산대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문화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와 손녀로는 초등학교 2학년과 4살배기입니다.

Q: 고향은 어디입니까?

A: 고향은 진주인데, 어린 시절부터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경

남상고 교감이셨는데, 중풍으로 김해로 이사 가서 거기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부산의 개성중학교, 부산공업고등전문고등학교(5년제)를 졸업했습니다. 부산공전을 졸업하자마자 울산 유공에 취직했는데, 곧 병이 들어서 고신대 신학과에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가 오병세 박사님과 이근삼 박사가 계시는 때인데, 고신대 2학년으로 편입하라 했지만 시험을 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My View of Christian Life”(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견해)라는 주제를 영어로 작성하는 시험이었는데, 영어 실력을 인정받아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3학년에 정근두, 윤현주, 손창호, 변재창 등이 동기로 재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군대를 가는 바람에 졸업은 몇 분이 저보다 일찍 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만 3년 했는데, 김신조가 넘어오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Q: 목사님께서 공부하신 이력과 목회하신 이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 목회자로서의 소명은 군대생활을 통해서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소명을 너무 주관적으로 강하게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고신대 신학과 3학년 한 학기만 하고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포병부대로 배치되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군중사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원래 포병부대에 군중병이 없었고 연대에만 있었는데, 당시 이웃 연대 군중병은 정주채 목사였습니다. 정목사는 저와 동연대로 교회 친구입니다. 포병부대에 군중병이 처음 생겨 제가 군 생활 마지막 1년을 군중사병으로 사역했습니다. 그 때는 들은 풍월로 말씀을 전하고 섬겼는데, 이상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대령이었던 포병사령관이 대대 군중병이었던 나를 눈여겨보고 이근삼 박사님께서 이웃 부대의 신앙강연회 강사로 오셨을 때, 나를 이박사님께 소개해주셨습니다. 그 때 이박사님과 면담하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복학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바람에 제대 후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박사님을 통해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게 이것이 소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대원 들어가면서 결혼했습니다. 변재창 선교사의 소개로 평생에 선 한 번 보고 바로 결혼했습니다. 집사람은 믿지 않는 집안에서 홀로 신앙생활 했는데, 그것이 귀하게 보였습니다.

졸업 후 기장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계시지 않는 1년 동안 제가 전임 사역을 하게 되었고, 이후 정판술 목사님께서 부임 하셨습니다. 정목사님이 부임하셨을 때 제가 강도사였는데, 교회 건축을 위해 1년 사례를 바쳐 참여했습니다. 물론 제가 담임은 아니었지만 기장교회를 건축한 것이 제 목회의 최초 교회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종삼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던 개금교회에 부목사로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 첫 부목사였습니다. 개금교회 두 번째 부목사는 지금 성안교회 담임이신 윤장은 목사입니다. 저는 부목사 생활 2년 만에 삼천포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개금교회 담임이셨던 김종삼 목사님과 저는 요즘말로 코드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내 사람과 남 사람의 구분이 뚜렷했습니다. 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주실 만큼 사랑하시지만, 반대로 내 사람이 아니면 거리를 두시는 분이셨습니다. 반대로 저는 내 사람과 남 사람으로 구분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지금도 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목사님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제 목회의 멘토셨습니다. 목회가 힘들 때마다 찾아뵙고 목회 상담을 받았습니다. 고민을 털어놓으면 격려와 함께 지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목욕도 함께 가고.

Q: 삼천포에서는 몇 년 동안 목회하셨습니까?

A: 삼천포에서는 만 9년 목회했습니다. 삼천포교회는 서부경남에서 가

장 오래된 3대 교회 중 하나로 아마 1908년에 설립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1905년에 설립된 교회가 거창교회와 진주 봉래동의 진주교회인데, 이 세 교회가 오래된 교회면서 초기에는 큰 교회들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 삼천포교회는 10년마다 내부적으로 대란이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부임한 목사님들 가운데 3년을 넘긴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4-5년 정도가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제가 그 때까지 가장 오래 붙어있었던 목회자일겁니다. 제가 갔을 때 삼천포교회는 죽음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당시 삼천포교회 사건은 총회적으로도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진주노회 이금조 목사님께서 제게 2개월만 있다가 나가도 괜찮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성도들은 40-50명 정도였는데,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삼천포교회에서 파란만장한 고비들을 많이 넘겼습니다.

삼천포시는 당시 인구 5만으로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시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한전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택들이 교회 주변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간 그 해 말에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해서 1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440평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때 당시 유행하던 벨엘 전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꽤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4-5년 지나자 400명 정도 모이게 되었습니다. 한전 직원의 과반수 내지 3분의 2 정도가 우리 교회에 출석할 정도였습니다. 제 친구인 부산공전 동창 부부들까지도 등록했습니다.

88년쯤엔가 시민초청 총동원전도주일 행사를 했는데, 3,003명이 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6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때 저는 흥분하여 ‘오순절이 왔다. 이건 오순절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삼천포 인구는 변두리 합쳐서 5만이었지, 정작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2만 정도였으니까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등록된 새신자는 3명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때 비로소 ‘나는 사기꾼이구나! 내가 베드로는

아니구나!’하고 깨닫게 되었지요. 하지만 매주 꾸준히 10명씩 와서, 그 해 100명의 새신자를 얻었습니다. 그중 여자 목사가 된 분도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선택한 곳이 송도제일교회입니다. 나이 40세가 조금 넘는 90년 1월에 부임했습니다.

Q: 목회철학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A: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고려파 정신으로 목회했다고 할까요. 저는 친구들도 잘 만나고 개방적으로 사니까 치유가 많이 되더라고요. 목회자는 좀 개방적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가야 목회를 오래합니다. 저는 단지 안 죽고 살기 위해 목회했다고 생각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목회했지 특별한 철학은 없습니다.

Q: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목회자를 청빙할 때 빼놓지 않고 요구하는 것이 목회철학인데요, 목사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저는 그런 것을 써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말로 꾸미면 무슨 수려한 문장으로 목회철학을 만들어 내지 못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 전심전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명이요, 목회철학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고상한 말은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안 죽고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Q: 목회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삼천포교회입니까?

A: 삼천포교회는 지방교회, 중소교회의 모든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

다. 바닷가 아닙니까? 그곳에서 저는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책으로 쓸려면 여러 권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 당시 회계 집사님이 장부를 가져오더니 저에게 획 던지고 가더라고요. 그 때 깨달은 것이 '모든 교회 문제의 책임은 결국 목사에게 돌아오는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을 많이 받았지요. 교회 짓다가 진 빛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갇기 시작할 때 교인들은 자기 돈부터 챙기고 제가 빌려온 돈은 맨 나중에 밀어내더라고요. '교회의 한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사람을 그렇게 깊이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목회는 결코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것이 목회의 중요한 철학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 목회에 있어서 당회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회원들의 성질, 믿음의 수준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골교회에서 설교 1시간 하고 나면 당회를 3시간씩 합니다. 설교에 시비를 걸면 참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교회는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Q: 송도제일교회에서의 목회는 어떠했습니까?

A: 장로님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어린 장로님들이 좋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는데 교인들이 볼 때는 저는 완전히 촌뜨기 목사였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 목회하신 분이 너무 똑똑하고 목회를 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누가 주목사를 데리고 왔느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고(故) 박종탁 장로님이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교인들의 존경과 신임을 받던 고(故) 박종탁 장로님 덕분에 목회 초기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늘 광고할 때나 기도 중에 “은혜로운 주목사님, 은혜로운 주목사님의 말씀...” 하시면서 부족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미국 플러신학교에서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습니다. 제

가 처음 송도제일교회에 부임하니까, 교인들이 기도를 저보다 더 잘 하더라고요. 전임 목회자로부터 그만큼 훈련을 잘 받았던 것이지요. 4~5년 지나면서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곳에서 20여년 목회했는데, 그동안 건축도 하고 해서 지금은 부산노회에서 제일 큰 교회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Q: 원래 송도제일교회는 건축을 위해 저축도 하고 있었고, 저축한 돈으로 아동병원 부지를 사려고 하다가 현재 위치에 교회를 새로 건축한 것으로 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A: 저는 3번 교회를 건축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장교회, 삼천포교회, 송도제일교회입니다. 기장교회는 비록 제가 담임은 아니었지만, 헌신했기 때문에 제가 건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천포교회에 비하면 여기 송도제일교회는 성숙한 교회이고, 교인들도 신사조. 비교적 평안하게 지었습니다.

Q: 목회자와 당회원과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당회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당회하기 전에 유력한 장로와 미리 말을 맞추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당회원들 가운데 내 사람을 몇 명 만들어야 한다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평하게 합니다. 저는 장로님들에게 "주목사는 공평하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부산 어느 유력한 교회 목사님이 제게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10명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목사도 어떤 점에서 지도자

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람들과 유착되어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Q:** 목사님의 목회철학을 요약하자면 ‘사람 의지하지 않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목회를 지금 은퇴에 가깝게 해오셨는데, “목회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A:**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를 현실화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며,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참 교회라면, 목사나 중직자가 하나님의 일을 훼방 놓지만 않는다면, 거치는 돌만 되지 않는다면, 재만 뿌리지 않는다면 목회는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 원하시는 역사의 범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큰 교회 목회한다고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세계적인 목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고다, 완전하다, 완성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직자들에게 설교할 때 “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너무 잘하려고 애쓰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거리나 걸림돌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시되, 원하시는 만큼 사용하신다고 봅니다.

**Q:** 너도 나도 앞 다투어 총회장을 하겠다고 하는 실정인데, 사실 총회장 임기는 1년뿐입니다. 교단을 위해 생각했던 무엇인가를 실행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기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목사님께서는 언제 총회장에 출마할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A: 저는 사실 정치와 맞지도 않고 체질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2003년 이후 관선이사 사건으로 교단 내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총회임원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묶이는 바람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저 같은 비 정치가가 총회 서기로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총회 서기를 하면서 비로소 총회의 문제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회와 학원 간의 재정의 경계선이 없고 뒤얽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고려파가 신대원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속칭 '신대원주의자'의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대원에서 모든 영적인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신대원이라는 곳은 총회가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교역자 양성의 권위를 갖게 된 것이지, 신대원 자체가 스스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처음에는 신학교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미 고신파는 한국교회 중견 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신대원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총회가 권위를 줄 때 신대원이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총회가 고신대에 그 권위를 주기로 결정하고 지정하면 고신대가 신대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신파는 고신대와 병원을 운영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총회가 이 사실을 직시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교단적인 여러 문제들을 보면서 교단을 위해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번 꼭대기에서 봐야 전체를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장에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권력의지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Q: 부총회장 선거, 총장 선거, 기독교보 사장 선거 등 금권선거는 사회적으로도 큰 부정인데, 하나의 관례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기독교보 사장 선거를 총회가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부결시킨 것은 참으로 하나

님 앞에서 잘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권선거의 관례가 교단 안에서 쉽게 사라질까 여전히 의문입니다. 금권선거의 관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불러간다거나 스스로 그런 자리를 마련하여 식사비를 제공하고 차비까지 챙겨주는 금권선거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현실과 이상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어느 선까지가 건전한 선거이고, 또 어떤 것이 부정선거인지를 판단하는 상식적인 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통틀어서 부정선거라고 말한다면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총회는 범주가 크니까, 기본적으로 선거비용이 어느 정도는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총회유지재단 선거에 대한 총회적인 결과 때문에 총장 선거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금권선거,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잘 살피고 정확해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총장 선거에서는 학원이사장이 선거 전에 이사들에게 아무도 후보를 만나지 못하도록 단속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거가 별 잡음 없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계속 정확해 간다면 더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으리라 봅니다.

Q: 교단적인 선거에서는 여전히 모이고 식사하고 차비주고 하는 관행이 있는 것 같은데, 사회법적으로는 만원 한 장이라도 봉투에 넣어서 주면 금권선거, 불법선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이런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고신 초창기에는 서로 총회장 안하려고 싸웠다는데, 이제는 왜 서로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박 터지게 총회장이 되려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총회의 선거란 하나의 교단적인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고신 교단을

위해 일할 사람이 있고, 또 그들이 자신의 정책과 소견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회장 한다고 해서 눈에 띄게 괄목할만한 교단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소명을 가지고 소신을 주장하여 당선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비용에 대한 문제는 규정을 만들어서 형평성 있게 사용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선거 운동을 하다보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Q: 이 문제는 이 정도로만 질문 드리고 주제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원고는 다 쓰시지요?

A: 네 원고는 100% 다 쓰지요.

Q: 보통 하는 말로 제목설교를 하십니까? 아니면 강해설교를 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A: 전에는 주일 낮에 제목설교를 하고 오후 예배는 강해설교를 원칙으로 했는데, 지금은 모든 주일 오후예배를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부목사들이 많다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나흘 동안의 주중 새벽기도회에서만 강해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강해설교의 맛을 새벽기도 외에는 놓친거죠.

Q: 어떤 책을 선택해서 설교하시는 분도 계신다는데, 목사님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A: 큐티(QT = Quiet Time)해서 좋은 제목에 떠오르면 그 본문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가급적이면 구조적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즐기고 노력합

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늘 믿음이나 축복과 관련된 설교를 하는데 저는 사회적인 것도 하고 정치적인 것도 하고 가정적인 문제도 취급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설교 주제와 내용의 스펙트럼을 넓혀서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번 총회 개회 설교에서 밝힌 것처럼 고신교회 성도들이 지켜야 할 신앙생활의 수칙 다섯 가지와 같은 다양한 주제들을 설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설교를 위해 목사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책이나 설교에 도움을 받았던 주석이랄까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A: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특정한 것도 없고요, 그냥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책을 참고합니다.

Q: 네 고신교단 총회장으로서 ‘고신교단이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네, 이것이 중요하지요. 부총회장이 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되고 보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도 확실하다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우리 총회가 작은 총회도 아니고 교인이 50만이고 교회가 1,800 개인데, 이 속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크게 깨달은 것은 우리 고신파는 한국교회에 아주 건전한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고신이라는 명칭 자체는 상징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고려파였지만, 지금은 고신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앞으로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다른 이름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즉 ‘고신’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의 이상이 될 필요는 없다는 뜻이지요.

장로교인 우리 고신교단이 한국교회의 한 부분인데, 우리 교단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후보였을 때와 부총장이었을 때가 다

르더라구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10살 정도 젊은 목사님들을 모아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가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제게 하는 말이 '주목사는 단점이 많지만, 좋은 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듣는 귀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회장으로서 특별히 우리 교단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깊이 해야 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니까 금년에 고신 61주년으로 60년이 지난 첫 해이고, 한국장로교 역사의 100년이 지난 시점이라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교단의 정체성 같은 경우 다 맞는 말인데, 아직 너무 초보적인 사고에 묶여 있다고 느꼈습니다. 예컨대 우리 교단의 정신인 '신앙의 전통'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개혁주의 아닙니까? '생활의 순결'이나 '코람데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단 정체성의 알파와 오메가가 될 수 있는냐는 것이지요. 합신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구호들이지만, 이런 구호에만 머물지 말고 앞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주의가 지향하는 것은 뭘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케케묵은 단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제겐 참으로 다이나믹하고 모던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복음의 길을 가야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복음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삶의 회복을 외쳐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고신이 한국교회 혹은 한국장로교회 최초의 프로테스탄트가 아닙니까? 우리 고신은 개혁주의의 심볼과 같은 교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 반대하고 우상숭배 반대해서 생긴 교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교단의 정신이 아닙니까? 이런 용감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 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선배들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수파 중에서는 큰 교단에 속합니다.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천 만성도 중에 50만이면 5% 아닙니까? 5%라는 것은 지구 반대편에서도 만날 수 있을 만큼 많은 수입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고려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미국에 가도 있고, 땅 끝에 가도 있습니다. 고신의 프로테스탄트적인 저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만 고집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을 넓혀서 한국교회 전체의 것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른 교파나 교단 사람들이 볼 때, 고려파는 괜히 잘난 척 하는 거 같고 접촉하기 힘든 교단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지요. 우리가 가진 것이 좋고 우수한 것이라면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것을 우리만의 것으로 움켜쥐고 독점하려 들지 말고 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 사람들이 우리를 어려워하기 보다는 ‘고려파, 참 매력적이다. 그곳에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뀌서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겸손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 모자란다, 이런 좋은 전통 속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좋아하겠지요. 보수 꼴통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제 6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는 정말 내부적으로 경건한 자긍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기를 과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괜히 작다는 자각지심 때문에 엉뚱한 것을 과시하려고 하다가 바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신교단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다는 자각지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합신과의 합동 문제는 먼저 미래를 생각해야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튼튼한 보수 교단이 안정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아직 고신교단의 교세만으로는 안정감이 부족하다고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3,000 교회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합신이 지금 900 교회에 15만 성도입니다. 통합측은 8,000 교회로 아주 탄탄합니다. 거기는 교역

자 대책, 미자립 교회 대책 등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8,000 교회까지는 필요 없고, 3,000 교회만 되어도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합신과의 교단 합동을 통해 안정적인 보수 교단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고신이나 합신 모두에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Q: 목사님께서 총회장 되시기 전에 부총회장으로 활동하실 때 브레인 그룹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브레인 그룹을 만들어서 총회장 준비를 체계적으로 한 것은 제가 들은 바로는 목사님께서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것을 계획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A: 그렇지요. 저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교단의 미래가 상당히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교단에서 좀 더 젊은 사람들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해 보니까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단을 위해 이런 브레인 그룹 같은 것을 조직하자고 총회에 건의하기까지 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인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단을 위해서는 그런 그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브레인 그룹 때문에 정치 세력 만든다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제가 제시한 “복음의 길, 3세대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도 이런 브레인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의 미래 4-5년을 내다보고 만든, 일종의 청사진 같은 겁니다. 통합측은 10년 전부터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표제가 나오면 전국노회와 교회가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Q: 총회장님께서 총회 산하에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미래정책연구위원회 같은 것이 아닌, 미래정책연구소 같은 상설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십니까?

A: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지만, 필요하다고 모두 만들면 그것도 문제겠지요.

Q: 아무래도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에 비해 교단적인 크기는 작지만, 실제로 다른 교단들이 우리 고신교단을 작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고신대학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신대학에 의대와 부속병원까지 있는 준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덩치가 커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보면 우리 고려학원 안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지 않습니까? ‘한 지붕 세 가족’이지요. 고려신학대학원, 고신대학, 복음병원, 이 세 가족이 각각 따로 살림을 살고 있는데, 미래를 위해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총회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것이 문제의 핵심이며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A: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 교단이 하나로 화합 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총회 산하 10개 부서와 학교 법인 아래 세 단체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보다 더 덩치가 큰 통합측은 신학교가 거의 각 도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로 많지만 서로 화합하고 잘 지냅니다. 교단적으로 신앙의 충실도, 헌신의 충실도, 선교의 참여도를 따져보면 우리 고신 교단이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1급입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순복음교회는 50만 성도에 1년 경산비가 1,200억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고려파는 50만 성도에 특별헌금, 절기헌금 등을 뺀 십일조와 감사헌금만으로 3천억이 넘었어요. 우리 고신이 1,800개 교회인데, 이 가운데 남을 도울 수 있는 교회는 300교회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1,000교회는 유지하기 바쁘고, 그 중에 500개는 개척교회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경산비가 3천억이 넘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리고 선교사에게 매년 100억 넘게 보내고, 전도를 위해 50억씩, 학원을 위해 평균 60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신은 결코 작은 교단이 아닙니다. 총회가 중심이 되어 교단적으로 하나만 된다면 지금 고려학원 산하 세 교육 기관인 고려신학대학원과 고신대학과 복음병원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총회의 힘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 고신 교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직영하는 고려학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프라, 세계 선교와 교육, 그리고 사회봉사 참여하는 것에 호감을 가지도록 한다면, 총회 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이상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투구하고 파당적이고 분열적인 모습을 타파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Q:** 우리 교단 산하의 세 교육 기관이 한 지붕 아래 세 가족으로 있지만 마음만 합치면 얼마든지 당면한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A:** 그렇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희생이 따르겠지만. 이런 문제를 위해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도 생각의 일치가 안 되더라고요. 신대원에 갔을 때 느낀 것은 복음병원은 세상병원인데, 왜 우리에게 붙여서 힘들게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에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 힘이 흩어집니다. 저의 의도는 부분적인 것보다는 전체를 보고 전체적으로 좀 깊이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기관장들이 교단을 전체적으로 보고 함께 모여서 협의한다면 문제의 50% 정도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Q:** 마지막 주제인데 총회장하시기 전에 브레인 그룹 했을 때 종교개혁

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A: 종교개혁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혁신주의에서 자라났으니깐요. 사실 저는 잘 모르고 “레포 오백(Refo 500)”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Q: 사실 레포 오백(Refo 500)이란 종교개혁 500주년인 2017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개혁 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겨 보자는 의도로 세계칼빈학회 회장인 셀더르하우스(Selderhuis) 교수가 조직한 것입니다. 셀더르하우스 교수는 네덜란드 아펠도른(Apeldoorn) 신학교의 교회사 교수이며 저와는 동문으로 같은 지도 교수 밑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총신의 안인섭 교수가 이 “레포 500”을 알고 접촉을 시도하여 레포 500의 아시아 지부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신이 이 사업을 주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장신의 통합측이 볼 때, 그렇게 달갑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측은 기독교학술원의 이종운 목사가 주도하여 한국의 레포 오백과 관련된 행사를 독자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동측이 대외적으로 레포 500의 알리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세계 레포 500측에서 개혁주의학술원을 통해 우리 고신 교단에도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고신대학도 세계 레포 500에 매년 회원비를 지불하는 정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양대 큰 장로교단인 통합과 합동이 시위하듯이 행사를 치르고 서로 힘겨루기 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개혁주의연대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주의연대 역시 세계의 교단이 총회적인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들이 의기투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서로 종교개혁의 주인 노릇만 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레포 500과 관련해서는 세 개의 교단이 총회차원에서 교단적으로 합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총회장님께서 그런 일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A: 뭐 어쨌든 간에 우리도 합신과는 대화의 창이 열려 있고, 또 합동, 고신, 합신의 신학은 개혁주의이니까, 개혁주의 장로교회라는 큰 틀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지요.

Q: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